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은퇴예정자의 과반수, 노후자금 부족

- 근로자복지연구소(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)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56세~62세인 베이비붐 세대들 중 47%가량이 은퇴이후 기본적인 생활과 보건비용에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47%는 연구소가 2003년에 실시한 59%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, 연구를 주도한 Jack VanDerhei 박사는 사회보장제도가 베이비붐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.
 - 현재 36세~45세인 소위 X세대들은 아직 은퇴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그들 중 44.5%가량은 은퇴자금이 부족한 상황임.
 - 저축이 불충분한 개인도 문제가 되지만 이들로 인한 과중한 부담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현재 충분한 저축을 가진 사람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.
- 금융위기 이전,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족한 저축을 만회하기 위해 주식에 투자해왔으나 2007년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타격을 받았으며,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401(K)가 가장 효과적인 은퇴대비 수단이라고 연구소는 밝힘.
 - 연구에 의하면 55세 이상의 사람들 중 약 20%는 은퇴소득의 90%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주식시장 폭락이후 주가는 최근 67% 회복하는데 그쳐 여전히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.
 -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연금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저축을 가능하게 하는 퇴직연금제도 401(K)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은퇴를 위한 저축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.
 -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401(K)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많은 사용자들이 근로자 임금의 3~6%를 401(K)에 불입하고 있음.
 - 401(K)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10%도 채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여의 일부분을 자동으로 납입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은퇴자금 대비 수단이며, 의회는 이러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변화를 고려중에 있음.

(Chicago Tribune, 7/13)